

한국 YMCA와 105인 사건

- 윤치호와 1911년 제2회 학생 하령회를 중심으로 -

키노시타 타카오(木下 隆男)*

- I. 머리말
- II. 1911년 6월, 제2회 YMCA 학생 하령회
- III. 윤치호와 YMCA
- IV. 1910년, 윤치호의 미국·영국 여행
- V. '양기탁 등 보안법위반 사건'과 105인 사건
- VI. 경무총감부 쿠니토모경시(警視)의 엄청난 추리
- VII. 맺음말

I. 머리말

한일합방 후 약 1년 2개월, 즉 1911년 10월경부터 평안북도 선천에 있는 기독교계 사립학교 신성(信聖)중학교의 학생들이 느닷없이 이유도 모르게 체포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당초 학생 3명의 체포부터 시작한 이 사건은 그 후 학생뿐만 아니라 같은 학교 교사들, 그리고 선천 주변에 있는 안악, 광산(郭山), 납청정(納淸亭) 등지의 학교 학생, 교사들 및 일반인들 에까지 파급하고 합방 후 최대의 사건이 되어갔다. 뒤에 “테라우치 총독 모살 미수 사건”, 통칭 “105인 사건”이라 불리게 된 이 사건은 합방 이후 여전히 은연한 반일세력이었던 조선 서북지방의 기독교 인사들을 일망타

* 숭실대학교 대학원 기독교학과 석박통합과정

진할 목적으로 조선총독부가 꾸민 모략사건으로 간주돼 왔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상실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몸을 던진 기독교인들의 한국독립운동사상 잇을 수 없는 빛나는 역사로서도 전해 내려왔다.

그런데 현재 이 사건에 대해 한국 역사학계 및 국민 사이에 널리 유포돼 있는 “105인 사건상(像)”에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점은 다음 두 가지이다.

(1) 사건이 일어나고 체포된 사람들이 기소되어 3차에 걸친 재판 끝에 최종적으로 윤치호·양기탁·안태국·이승훈·임치정·옥관빈 6명이 실형 언도를 받고, 1915년 2월, 그들이 대사(大赦)로 석방되기까지는, 이 사건의 최고지도자로 지목된 윤치호가 사건의 중심적 존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포돼 있는 105인 사건의 설명에는 윤치호의 이름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중심인물로 이름이 나오는 것은 양기탁·안창호·이승훈 등뿐이다. 윤치호의 이름은 이 사건에서부터 거의 말살된 것 같은 느낌조차 없지 않다. 왜 윤치호의 이름은 이 사건 이야기에서부터 없어졌던가?

(2) 또 현재 유포돼 있는 설명에 의하면 이 사건을 주도한 단체는 신민회이었으며, 그 주요 구성원 속에는 위에 든 양기탁·안태국·이승훈·임치정·옥관빈을 비롯해서 이동녕·이동휘·이갑·김구 등등 거의 모든 반일 독립운동가들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사건 때문에 재판을 받은 양기탁 등 5명 모두가 3차에 걸친 재판에서 자기가 신민회원이었음을 부인하고 있다. 특히, 현재 유포돼 있는 정설에서 신민회 회장으로 간주돼 있는 양기탁은 제1차 재판 법정에서 성경책 이야기를 예로 들으면서 자기가 신민회원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현재의 신민회 정설은 당시 경무총감부가 주장한 바와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되어 있다. 사태가 이렇게 뒤틀린 원유는 어디에 있을까?

이 두 가지 의문점은 서로 별개 문제가 아니라 밀접하게 상관된 문제이지만, 이 논문에서는 문제(1)을 풀어내는 것에 한정하고 왜 윤치호가 이 사건에 연루되게 되었던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II. 1911년 6월, 제2회 YMCA 학생 하령회

105인 사건과 그에 앞선 안명근의 강도살인사건(일명 안악사건) 및 양기탁등의 보안범위반사건의 수사·취조를 술선 진두지휘한 경무총감부 경시 쿠니토모 쇼켄(國友尙謙)은 1910년의 한일합방을 전후한 시기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렇지만 예수교도는 ... 비교적 문명의 지능을 가진 계급 출신자를 망라하고, 이 무리들은 언제나 국사를 말하고 ... 조선 각지를 교우방랑하고 ... 10리 20리도 마치 이웃을 다니는 것처럼 ... 그들 스스로 동서 남북의 사람을 자칭하고 사방으로 배회하면서 한편으로는 각지의 흉도(兇徒)와 기맥을 통하고, 특히 예수교에는 조선 전토에 걸쳐 사계절을 통해 차례로 혹은 연회, 혹은 몇 차례의 사경회, 혹은 노회, 혹은 하령회, 혹은 총회, 혹은 성서연구회, 기타 무슨 회, 뭉 뭉 회라고 1년을 통해 수십 차례의 모임이 있다. ... 기타 매년 여름마다 대구, 마산, 전주, 청주, 경성, 개성, 평양, 재령, 선천, 의주, 성진 등의 비교적 규모가 큰 예수교학교 혹은 중학교의 시설이 있는 지방에서는 지방학교의 교사를 모아놓고 사범강습회를 개최해 학과를 가르치고, 그것도 거의 다 흉도들의 기맥을 통하기 위해 개최된 것 같은 결과로 끝나기가 일쑤이다. ... 그 위험하기 짝이 없고, 그 풍조야 절대 그냥 놓아둘 수 없다.¹⁾

좀 과장된 감이 없지 않으나 이런 기독교인들의 전국적인 네트워크의

1) 國友尙謙 『不逞事件ニ依ッテ見タル朝鮮人』(1986, 토쿄, 不二出版: 『百五人事件資料集 第2巻』), 367-370

위력이 7년 후 1919년, 3.1 독립운동 때 발휘되게 될 것을 생각하면 당시의 총독부 경찰관으로서의 탁월한 관찰이라 할 수 있다. 이는 1912년 6월 28일의 제1차 재판 개시부터 같은 해 9월 28일의 결심(結審)까지 사이에 쓰인 기록인데, 경무총감부가 위와 같은 YMCA의 활동을 “흉도들”의 모의의 모임으로 인정한 것은 1911년 6월 26일부터 1주일 동안 개성 한영서원에서 개최된 제2회 YMCA 하령회(夏令會)를 계기로 한 것이었다. 위에 인용한 글에 이어서 쿠니토모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를 붙인 부분은 필자의 도움말. 이하 같음.

실제로 [1910년 12월의] 암살흉모가 있던 다음 달 1911년 1월, 선천 신성중학에서 사경회를 개최했을 때 함경도 신민회의 수령으로서 성진 거주의 이동휘도 참석, 기타 이승훈, 양전백(梁甸伯) 등 무리가 많이 모였어, 그 전해 12월, 흉모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던 것을 개탄하고 ... 또 같은 해[1911년] 6월 26일부터 1주일 동안 윤치호가 장악하는 개성 한영서원에서 윤 자신이 회장이 되어 하령회를 개최하고 전라·경상·충청·평안·황해·경기 각도 소재의 예수교의 각 학교에서부터 대표자 100여명이 참석하며, 그 자리에서 윤치호는 국가의 독립을 외쳐 강개하고, 동시에 신민회의 가장(假裝)단체인 청년학우회의 회원을 모집 하는 것, 그 모집은 회의 참석자가 맡을 것 등을 의정(議定)하고, 그 후 윤치호·최상호(崔相浩)·육정수·이상재·양전백·양준명(梁濬明)·이용화(李容華) 등이 모여서 전해 12월, 흉모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던 것, 인천 파마양행(巴馬洋行)과 계약하고 ... 일제의 물화를 배척하고자 한 계획이 화병으로 돌아간 것을 개탄하고..... 2)

이 글에는 청년학우회가 신민회의 가장단체이며, 그 청년학우회를 실질

2) 같은 책, 370-372

적으로 지휘 지도하고 있는 자가 윤치호, 최상호, 육정수, 이상재 등 경성 YMCA의 간부들이라는 경무총감부의 “인식”이 나타나 있다. 쿠니토모는 다른데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신민회는]조선에 있어서는 본부를 경성 예수청년회에 두고, 경성 이남의 사무 및 각지와 왕복·연락은 청년회 및 경신학교, 이서(以西)의 사무는 평양대성학교 및 송실중학교에서 취급하는 것 같다.³⁾

이로 보아서 총독부 경무총감부가 105인 사건의 수사·체포에 나섰던 무렵, 그들의 인식이 황성 기독교 청년회(YMCA)가 신민회의 조선 내 본부라는 생각이었던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경무총감부한테 그런 의심을 받게 된 YMCA는 그 무렵 어떤 상황에 있었던가?

전택부의 『한국 기독교청년회 운동사』에 의해서 한국 황성기독교청년회의 학생하령회의 역사를 간추리면 아래와 같다.

한일합방이 되기 2개월 전, 1910년 6월 22일부터 27일까지 서울 근교 진관사(津寬寺)에서 제1회 학생하령회가 개최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46명의 학생들이 초청되었고, 6개 교파의 4개국 국민 중에서 16명의 연사가 초청되었다. 이것은 한국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초교파, 초국가적 학생 집회였다. 이 하령회를 계기로 각 학교에 학생 YMCA가 부활되었고 경신학교, 세브란스 의학교, 송도의 한영서원에도 학생 YMCA가 조직되어 모두 6개 학생 YMCA로 증가되었다. 이에 따라 학생운동 담당간사의 필요성을 느낀 YMCA 당국은 YMCA 국제위원회 총무 모트(J. R. Mott)의 소개장을 얻어 YMCA 강사 그레그(G. A. Gregg)를 미국에 파송하고 당시 미국에 있던 이승만을 담당간사로 초빙하는 것에 성공했다. 이승만은 1910년 10월 말 귀국하고 처음 6개월간은 주로 서울에서 학생운동을 지

3) 같은 책, 78-79

도했다가, 1911년 5월 16일부터 6월 21일까지 YMCA 감사 브록만(F. M. Brockman)과 더불어 전국을 순회했다. 그는 서울에 돌아오는 길에 개성에 들러 YMCA 제2회 학생하령회에 참석했다. 이 제2회 하령회는 제1회 때의 46명보다 두 배가 더 되는 93명이 참석하며, 전국의 21개 학교에서 2명 이상씩의 대표가 왔으며, 다른 사립학교에도 큰 자극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기독교학생협의회(WSCF)의 가맹 문제를 다루었다고 했다.⁴⁾

한일합방을 전후한 YMCA의 이러한 활발한 활동에 경무총감부가 주목한 것도 당연한 일이다. 특히 그들을 자극한 것은 YMCA의 활동이 국제적이고 초교파적이고, 그리고 조서전토에 걸친 전국적인 활동이었다는 데 있었다. 합방에 제하여 그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조선사람이 일치단결하고 외세(미국, 영국)의 힘을 배경으로 반일 운동에 나서는 것이었다. 그들이 기독교 세력에 주목한 이유는 기독교의 국제적, 전국적인 네트워크의 존재가 있었지만, 특히 YMCA가 원래 특정한 교파의 조직이 아니라 초교파적인 조직이었다는 점에 있었다.

105인 사건에 있어서 제일 먼저 대대적으로 체포된 사람들은 평안북도 선천에 있는 기독교계 사립학교 신성중학교(교장, 장로과의 G.S. 맥칸)의 학생과 교사들 및 그 지방의 기독교인들이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경무총감부가 가장 중요시한 인물은 위의 각주2)에 인용한 글 속의 나오는 양준명(梁濬明)이었다. 이 사건에 있어서 경무총감부가 양준명을 얼마나 중요시해 있던가는 다음 인용으로 알 수 있다. 1912년 1월 27일, 체포한 양준명을 경무총감부에서 쿠니토모가 취조하고 난 뒤에 만든 신문조서의 일부이다.

* 인용문 중 (문)은 재판장의 말을, (답)은 피고인의 말을 포함. 이하 같음.

4) 전택부 『한국 기독교청년회 운동사』(1994, 범우사), 149-151

(문) 신민회의 수령은 누구냐?

(답) 안창호·윤치호·양기탁·이갑·유동열입니다.

(문) 현재는 누구냐?

(답) 이갑·유동열·안창호 등이 외국에 나간 뒤에는 윤치호·양기탁 2명이 총수령이었지만, 양기탁이 체포된 뒤에는, 즉 지금은 윤치호·유동열입니다.

(문) 각 도의 수령은 어떠냐?

(답) 평안북도는 이승훈, 평안남도는 안태국, 황해도는 김구, 함경도는 이동휘, 기타는 모릅니다.

(문) 이들이 체포된 뒤에는 어떠냐?

(답) 다른 도는 모릅니다만, 평안북도는 이용화와 접니다.

(2 줄 생략)

(문) 자네는 어떻게 해서 수령이 됐냐?

(답) 음력 올해[1911] 5월 말 아니면 6월 초, 이용화와 같이 오치은(吳致殷)을 대신해서, 인천에 있던 이탈리아 파마양행이 귀국했기 때문에 경성의 영국 영사관에 보증금을 되찾을 담판을 하러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상경하는 길에서 개성의 하령회에 출석하여 윤치호를 만났더니, 동인이 “일부로 총독 암살을 계획하여 옥관빈까지 파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속해서 목적을 이뤄야 할 일인데, 이승훈도 없는 일이니 자네들 둘이 신민회의 뒷일을 맡고 잘 챙겨라. 유동열도 돌아와 수령의 하나가 돼 있으니, 자네들도 경성에 갔을 때, 그를 만나 상의해라”는 명령을 받고, 승낙해서 헤어졌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유동열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경성에 도착한 2, 3일 후에 유동열을 찾아갔습니다. 그 때 유동열을 두 차례 찾아 갔습니다 ... 인사한 뒤에 유동열이 ... 이번 내가 돌아왔으니 신민회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다시 총독 암살을 계획할 테니 이승훈이 없게 된 뒤의 평안북도 신민회 일은 자네들 둘이 담당해라 하니 윤치호부터도 이야기가 있던 것을 말한 뒤 평안북도 신민회의 수령이 될 것을 승낙하고 ... 5)

5) 『한민족독립운동자료집 3』(국사편찬위원회, 1987), 438

이를 각주2)에서 인용한 쿠니토모의 수기의 내용과 비교하면 중요한 점에 있어서 거의 일치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신문조서 속에서 양준명이 신민회 평안북도의 수령이 “이용화와 접니다”라고 “자백”하고 있는데 이용화, 양준명 둘 다 1911년 6월의 제2차 YMCA 하령회에 참여한 인물인 것을 생각할 때, 위의 양준명의 “자백”이 경무총감부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증언이 되었던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준명은 제2심에 있어서, 이때의 하령회에서 윤치호를 만난 것을 인정한 이외 경무총감부에서의 신문조서의 내용을 고문에 의한 허위의 자백이었다는 이유로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다.⁶⁾ 유동열, 윤치호 역시 둘 다 전면적으로 부인했다. 요컨대 1911년 6월의 YMCA 제2회 하령회가 신민회의 가장단체인 청년학우회의 회원모집을 위한 자리였고 총독암살의 모의의 자리였다는 혐의는 다 경무총감부에 있어서의 양준명의 신문조서에 근거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문제는 경무총감부의 신문조서가 진짜 자백이나 가짜 자백이냐의 문제가 되지만,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다른 기회에 넘겨 이 논문에서는 일단 경찰신문조서가 허위 자백임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계속한다.

III. 윤치호와 YMCA

한국 YMCA의 창설기는 한국 역사상 가장 고난과 혼란에 찬 시기였으나, 그것은 윤치호에 있어서도 그의 한평생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 독립협회 운동의 좌절 후 약 5년 동안 덕원·삼화·천안 등 지방관리를 역임한 그가 외부협관으로서 중앙 정계에 복귀한 것이 황성기독교청년회

6) 『한민족독립운동자료집 1』(국사편찬위원회, 1986), 523-528

가 창설된 지 4개월 후, 1904년 3월이었다. 같은 해 8월에 그는 외부대신 서리(署理)로서 제1차 한일협약의 조인자가 되었고, 다음 해 1905년 2월에는 상해 중서서원 교사시절에 결혼한 마(馬)부인이 아직 나이 어린 아이 넷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사랑하는 부인을 뜻밖에도 잃은 그의 슬픔과 외로움은 그의 일기 속에 뚜렷이 나타나 있다. 언제까지나 잊어버릴 수 없는 부인이었지만, 남겨진 어린 아이들 때문에 2개월 후 그보다 25살이나 나이 아래인 백매려(白梅麗)와 재혼, 그 한달 뒤에 기독교 청년회의 이사로서 취임했던 것이다. 그때부터 더 반년 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그는 즉시 외부에 사표를 던졌다. 그러나 일본 고관들은 그의 정계 은퇴를 그냥 놓아두지는 않았다. 다음은 을사조약 체결 10일 후, 1905년 11월 29일의 그의 일기다.

내가 외부대신서리로 임명되었다. 스티븐스씨[D.D. Stevens 일본 고문]가 이를 말도록 강렬하게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왔다. 나는 다음과 같은 답을 썼다: 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외부를 그만둘 결심을 했습니다.

1. 외부대신 및 차관의 벼슬은 이미 그 본래의 직무를 할 수 없게 되었던 것.
2. 이미 무엇을 해도 나에게는 굴욕적이고, 국민에게는 싫어하고 미워할 것밖에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나는 참된 조선인이면 그와 같은 조약에 서명할 수 없다고 당신에게 말했을 것이요 만약 그와 같은 조약이 꼭 필요할 때는, 그 따위 노예적인 계약에 서명할 조선인이 아무도 없었더라도 일본은 그것을 실효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실제로 그랬을 것이 아닙니까?⁷⁾

일본 고관들 및 스티븐스와 같은 친일 미국인의 끈질긴 만류공작을 물리치고 관계(官界)를 아주 떠난 윤치호는 다음해 1906년 4월 대한자강회

7) 『尹致昊日記 第6卷』(국사편찬위원회)

회장직을 맡았고, 10월에는 개성에 한영서원(韓英書院)을 설립, 원장이 되었고, 12월 말, 황성기독교청년회 부회장 직을 맡았다.

대한자강회·한영서원·기독교청년회. 이 세 가지 조직 중, 대한자강회에는 오가키·타케오(大垣丈夫)라는 일본인이 고문으로 앉아 있었는데, “고문”은 이름뿐 실체로는 통감부나 일본 정부 고관들과 깊은 관계가 있는 인물로, 말하자면 일본정부의 감시 역할을 하는 자였기에 대한자강회에 큰 기대를 걸을 수는 없었다. 그러면 YMCA는 어떠했던가? 윤치호가 본 YMCA는 각주4) 인용문에서 전택부가 그리는 YMCA와는 달라 좀 소극적인 평가가 되어 있다. 그의 일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많다. 다음은 1905년 1월 3일의 일기이다.

상해에서 온 라이온씨(D. W. Lyon)는 질레트씨(P. L. Gillett)와 협력하면서 서울 YMCA를 단단한 기반 위에 세우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의 노력이 한국인한테서 보답받지 못할세라 두려워한다. YMCA가 설립된 당초 그 잠신함과 호기심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이 참여했다. 그러나 이미 잠신함이 지나가고 열도 식어버렸다. 조만간 그들은 떠나가 버릴 것이다. ... YMCA에 모여든 대부분 젊은이들은 거의 가난한 청년 아니면 부모들에 기댄 자다. ... 한국인이란 인종은 모든 고매(高邁)한 동기나 주의에 관해 전혀 관심이 없고, 수치심이나 애국심 따위에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다.⁸⁾

창립 2년 후인 지금 YMCA에 남아 있던 젊은이들은 옛날 독립협회에 뛰어든 젊은이들과는 달라 리더십을 발휘할만한 청년이 드물었던 것 같다.

또 한편으로 윤치호는 YMCA 한국인 서기였던 김정식(金貞植)과 인간적으로도 YMCA의 운영방침에 관해서도 전혀 의견이 안 맞았던 것 같다.

엠펙드 야간학교(Epworth Night School)의 종료식에 참석. Y의 한

8) 『尹致昊日記 第6卷』(국사편찬위원회)

국인 서기 김정식이 “이윤용이 공공사업에 선선하게 기부해주었다”고 입에 올리는 것조차 창피한 아첨찬 말로 이윤용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아 구역질 날 뻔했다. 이윤용이나 민영준이나 하는 무리가 다소간 선선히 기부해줬다 해서 칭찬하기 전에 개들이 어떤 방법으로 그 돈을 만들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라!⁹⁾

이러한 윤치호의 노염은 김정식이 아니라도 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인간관계 이외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황성 YMCA가 이 사들을 비롯해서 실무담당자들에 이르기까지 거의 다 외국인들로 구성돼 있었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잡다한 생각의 사람들의 집합체였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로 묶는 것만으로도 힘들 것이었다. 그런 이유에서 윤치호는 대한자강회, YMCA보다 비교적으로 자기 자신의 생각을 실현하기 쉬운 한영서원의 운영에 힘을 집중하기로 결심한 모양이다.

한영서원은 10년 이상 전에 그가 미국에 유학 가 있던 시절부터의 그의 꿈이었다. 고국 조선을 중앙 정계 내부에서부터 개혁하려는 그의 꿈을 을사조약 때문에 완전히 깨어진 지금, 미국 유학 시절에 싹튼 또 하나의 꿈이 다시 깨어나 움직이기 시작한 셈이다.

한영서원은 단순한 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에 그치지 않았다. 그가 거기에 건 꿈에 대해서 그가 에모리 대학(Emory College) 유학 중의 은사 워렌 캔들러(Warren Candler)에게 1907년 4월 16일자로 보낸 편지 속에서 다음과 같이 쓴 바 있었다.

친애하는 박사, 이제까지 제가 원하면서도 이루어지지 못한 꿈들 중의 하나는 이 나라에 기독교도의 손으로 모범적인 거주지역(settlements)을 만들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려면 다음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선교 센터, (2) 설비가 충실한 교육기관, (3) 정비된 도로 등을 갖추고 적어도 100호 이상의 집들을 수용할 수 있는 광대한 땅.

9) 같은 책, 1906년 7월 3일

(4) 이상의 조건을 갖춘 거주지역의 건설계획을 시작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금. 물론, 우리는 이러한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을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학교[한영서원]가 실용성의 착실한 기초 위에 확립된 날에는 우리의 선교운동의 주변에는 순식간에 하나의 새로운 마을이 생겨날 것입니다.¹⁰⁾

이 “새로운 마을”을 그는 다른 데서 “이상촌”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1911년 6월 24일부터 한국 YMCA 제2회 하령회가 개최된 한영서원은 윤치호의 이러한 아름다운 꿈이 담긴 학교였다.

그런데 왜 그런 윤치호가 하필이면 총독 암살을 목적으로 삼는 비밀결사의 우두머리로서 혐의를 받게 된 것인가?

IV. 1910년, 윤치호의 미국·영국 여행

을사조약 체결과 동시에 한국 관계를 아주 떠나버린 윤치호가 서울 YMCA, 개성 한영서원에서 기독교에 의한 교육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후 미국에서 안창호가 돌아왔다. 1907년 2월 20일의 일이었다.

그의 귀국에 앞서 2월 6일, 2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한국 통감부에 영문 밀고서가 던져졌다. 그 내용인즉, 미국 재주 한국인들이 한국 통감부를 전복시키고 이토통감을 암살할 목적으로 “공립협회(共立協會)”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했었는데, 그 회장인 안창호가 이토를 암살할 목적으로 이번 1월 하순에 미국을 떠나 귀국할 예정이니 충분히 경계하도록, 이라는 것이었다. 이런 내용의 밀고서는 통감부만이 아니라 한국 내에 있는 장로교, 감리교의 대표적인 교회에도 보내왔었다고 한다.¹¹⁾

10) 『尹致昊書簡集』(국사편찬위원회, 1971), 159-160

11) 『한국근대사자료집성 3 : 요시찰한국인거동(要視察韓國人舉動)』(國史編纂委員會, 2001), 165-166 [金益完의 投書 報告]

때 마침, 한국 기독교 교회에 있어서는 1906년에서 1907년 전반에 걸쳐 소위 부흥운동이 한창이었을 때, 안창호가 귀국 후 서울 평양 등지에서 개최한 귀국 연설회에 대한 반향은 그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없었던 것 같다. 그 연설회장(會場)도 서우회(西友會), 휘문의숙(徽文義塾), 평양 명륜당(明倫堂) 등으로 교회나 기독교관계의 시설은 포함돼 있지 않다. 안창호가 순수 기독교인들에게 호소할 것을 포기하고 부흥운동에 만족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과 민족주의적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대성학교의 설립으로 방향전환한 이유는 이때의 실패에서 반성한 결과가 아니었을까?

아무튼 을사조약 때문에 한국 정부 내부에서 정치를 개혁하는 것에 좌절한 윤치호와 귀국 강연회에서 기대한대로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안창호 양인은 그 후 급속히 접근하게 되었다. 윤치호는 한영서원 원장 직을 맡으면서도 안창호의 대성학교 교장 직도 맡게 되었고, 이어 대성학교 내에 결성된 청년학우회의 설립위원장 직도 맡고, 안창호가 안중근의 이토 암살 사건에 연루, 구속당했을 때 그의 신원 보증인이 되어 그를 보석시켜 주었던 것이다. 일본 당국이 그에게 혐의를 거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런데, 윤치호가 한영서원에 기대를 건 기독교인에 의한 새로운 마을, “이상촌(理想村)”의 꿈은 어떻게 되었던가?

1907년 4월 3일부터 7일에 걸쳐 일본 토고 칸다(神田)의 기독교청년회관에서 제7회 세계기독교학생연맹대회(WSCF)가 개최되었다. 윤치호는 한국 YMCA 대표로서 김정식·김규식·김필순·민준호·강태응, 그리고 프랭크 브로크만(Frank Brockman) 과 같이 참여, 한국대표로서 연설한 후 4월 11일에 귀국했다.¹²⁾ 이 대회에는 미국 남감리교 선교본부 총무 월터 램버트(Walter R. Lambuth)도 참여했는데 그는 윤치호가 귀국한 다음 날 일본에서 개성까지 윤치호를 찾아왔어 14일까지 체류하면서 개성의 기독

12) 『大韓每日申報』 1907. 03. 19 & 04. 16

교가 부흥운동 상태에 있는 것을 직접 보고 무척 감동했다. 그 후 그는 일단 일본에 돌아간 뒤 다시 6월 20일에서 25일까지 배화(培花)여학교에서 개최된 제11회 조선남감리교 선교연회 때도 내한하고 윤치호의 “이상촌” 이야기를 듣고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미국에 가서 모금모집 활동을 할 것을 강력히 권했다. 다음은 같은 해 7월 28일자로 윤치호가 미국의 캔들러(W. Candler)에 부친 편지의 일부이다.

(전략) 연회가 개최돼 있는 동안 윌슨 감독과 램벗 박사는 조선에 있었습니다. 저의 미국행에 관해 질레트씨가 감독 및 박사와 만나 이야기했습니다. 나 개인으로서는 특별히 미국행을 원치 않습니다만, 많은 돈과 힘을 들여서 내가 미국에 가는 것이 그럴만한 의의가 있다고 감독 및 램벗 박사가 생각하신다면 내가 가도 괜찮습니다. 특히 램벗 박사는 내 미국행은 틀림없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만약 내가 미국에 가면 우리의 이상촌 계획은 승인받을 수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 나는 이 권유를 받아들여 9월 8일 일본 코베(神戸)에서 증기선 시베리아환(シベリア丸)을 타고 떠날 예정입니다... 13)

미국 유학시절 이래의 아름다운 윤치호의 꿈은 이 편지를 쓴 직전에 일어난 헤이그 밀사 사건 때문에 더 더욱 절실한 것이 되었다. 소위 “의병”투쟁이 심해져서 일본 헌병경찰이 그들을 토벌하기 위해 무자비한 작전을 펼쳤기 때문에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안창호가 귀국했을 때 밀고서 문제 이래 한국 내외 연락 및 왕래에 대한 통감부의 감시는 엄중하게 되었다. 특히 헤이그 밀사 사건 때 이준이나 험버트가 비밀리에 국외에 벗어나 국제사회에 한국의 실정을 호소할 일이 있는 후부터는 더욱 그랬다. 한국 사람의 국외 도항 신청은 허가받기 어려워졌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허가 신청하는 사람은 통감부의 혐의를 받는 것을 각오해야 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이번 기회에 미국에

13) 『尹致昊書簡集』(국사편찬위원회, 1971), 166-167

가는 것을 단념했다. 아래는 이 사정을 쓴 1907년 12월 15일자 캔들러 앞에 보낸 편지의 일부이다.

(전략) 에모리 대학 동창회한테서 미국에 가 연설하도록 초대를 받았지만, 거절의 편지를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나는 개인적인 의향으로 미국에 갈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조국이 입은 굴욕에 의한 나의 충격은 너무 커서 미국이든 어디든 지금 내 마음은 외국에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¹⁴⁾

그가 대성학교 교장 직을 맡아달라는 안창호의 부탁을 받아들이고, 이어 청년학우회 설립위원장 직도 맡고, 안창호의 보석(保釋) 신원보증인도 맡은 이유는 “조국이 입은 굴욕”을 어떻게든지 간에 갚으려고 하는 그 나름의 자존심에서였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안창호가 체포되어 이미 대성학교도 크게 기대할 수 없게 되자, 그는 늦게나마 그의 “이상춘”의 꿈을 실현하도록 미국행을 결의했다. 한국을 떠난 것은 1910년 1월 8일의 일이었다. 그러나 그때 이미 통감부의 엄격한 감시의 눈이 붙어 있었다. 그가 떠난 이틀 후인 1910년 1월 10일자로 통감부 참서관 이시즈카(石塚英藏)는 일본 외무대신 이시이(石井菊次郎)에게 다음 보고서를 보냈다.

진 한국 외부협관이었던 윤치호는 영국에서 개최될 만국선교사회의에 한국 남감리교 대표자로서 출석하기 위해서랍시고 이달 8일 출발했는데 그는 일본을 거쳐 미국에 가 5, 6개월 머물 예정인데 미국에서의 용건은 포교자금을 모으는 것에 있다 하지만, 풍설에 의하면 한국의 비밀결사 신민회의 사명을 띠고 미국 재류 한인(韓人)들과 무슨 일을 꾀하고 있는 모양이니, 참고삼아 보고 드리겠습니다.¹⁵⁾

14) 같은 책, 176

15) 『한국근대사자료집성 3: 要視察韓國人舉動』, 381: 기밀통발(機密統發)제31호 [만국선교사회의 참석자 윤치호의 동정 보고]

일본 헌병대가 '대한신민회'의 취지서 및 통용장정목록(通用章程目錄)을 입수하고 이를 보고서로 올린 것은 1909년 3월 5일¹⁶⁾, 이에 따라 한국 내의 신민회 동정을 내정(內偵)한 결과 경무총감 와카바야시(若林)가 일본 외무부장 나베시마(鍋島)에게 보낸 보고서의 일자는 같은 해 3월 20일로 돼 있다. 거기에 보고된 “한국에 있어서 동회에 상관되는 주된 자”는 아래와 같고, 아직 윤치호는 포함돼 있지 않다.

한국 감독장(監督長) 양기탁·임치정·정영택·옥동규·이동휘·이종호·이갑·이항식·민형식, 총감(總監) 전덕기, 경찰원 이동관¹⁷⁾

이로 미루어 윤치호가 신민회에 관련돼 있다는 “풍설”이 돌아가게 된 것은 1909년 3월 20일 이후, 아마 안중근에 의한 이토 암살사건에 연루되어 안창호가 구속된 1909년 10월 31일¹⁸⁾ 이후의 일이 아닐까 추측된다.

아무튼 미국 재류 중의 윤치호에 대한 일본 정부 및 통감부의 감시는 계속되었고, 1910년 1월 28일에는 외무대신 코무라(小村壽太郎)는 미국 주재 일본대사, 총영사 및 영사에 대해 다음 지시를 전송(電送)했다.

전 한국 외부협관 윤치호의 동정에 관해 ... 도착 후의 동정에 관해서는 충분히 주의해서 무슨 참고가 될 만한 일이 있으면 연락해주시기를 바랍니다.¹⁹⁾

이후에도 몇 번 보고서가 오고간 후 1910년 6월 1일에 그동안의 윤치호에 관한 총합적인 보고서가 미국주재대사 우치다(內田康哉)부터 일본 외무대신 코무라에게 부쳐졌다.

16) 『통감부문서 6』(국사편찬위원회, 1999), 57-61: [大韓新民會趣旨書 및 同會通用章程等 報告 件]

17) 『통감부문서 9』(국사편찬위원회, 1999), 164: 警秘第591號의1 在米大韓新民會의 件

18) 『島山安昌浩全集 제13권』(도산안창호선생전집출판위원회), 연보

19) 『要視察韓國人舉動 3』, 401-402: 전한국외부협관 윤치호의 동정에 관한 건.

(전략) 동인은 도미(渡美)한 후 미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신문기자들과도 회담했는데 한국의 정치문제에 언급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자기는 이미 정치에의 뜻을 아주 끊은 몸이요 앞으로는 기독교 선교에 몰두할 각오라 공언하고 있는 모양인데, 올해 5월 중, 여기 워싱턴에서 만국일요학교회의가 개최되었을 때 일본에서 감리교회 감독 혼다·요이쓰(本多庸一)를 비롯해 약 20명 참석할 예정이었고, ... 5월 21일 본관이 그들 및 ... 40, 50명을 초대하고 입식(立食) 파티를 개최했을 때 윤치호도 혼다를 통해 초대했더니, 동인은 기꺼이 참석하고 적당히 이야기도 한 후 사직했습니다. 혼다감독의 이야기에 의하면, 윤치호는 이제까지 일본인을 기피해서 같은 감리교의 일본 목사들과도 너무 쌀쌀한 사이였는데 요즘에 와서 무슨 생각하는 바라도 있었던지, 조금 그 태도가 누그러져 보이며 일본 목사들과도 조금씩 접근하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 20)

이로 해서 일본 당국이 을사조약 체결과 동시에 한국 정계를 아주 떠나버린 뒤의 윤치호를 어떻게 보고 있던가를 알 수 있는 동시에 이번 미국 여행 중 그의 행동에는 별로 비밀결사 신민회와 상관하는 등 의심받을만한 점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이번 미국 여행의 목적은 한영서원 확장 자금 및 그의 아름다운 꿈, “이상촌” 건설 자금을 모집하기 위한 유세 여행이었던 것은 지금 에모리대학 우드러프 도서관에 보관돼 있는 그의 당시 편지 및 연설 원고로 보아서도 확실하다²¹⁾.

윤치호는 그 후 1910년 6월 14일부터 23일까지 영국 에든버러에서 열린 “세계선교자 회의(World Missionary Conference)”의 “해외선교지의 교회(The Church in the Mission Field)”에 관한 제2 위원회(Commission II)에서 6월 16일 연설했는데, 그 내용은 선교본부에서 배당된 보조금을

20) 같은책, 548-549

21) Yun Chi-ho Collection, Box No. 8f4, Item No. 1: “The Robert W. Woodruff Library”, Emory University

쓰는 방법에 대해 외국인 선교사만의 생각으로 결정하지 말고 현지의 선교사 및 기독교도의 의견도 반영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²²⁾ 따라서 6월 초에는 영국을 향해 미국을 떠났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그의 아름다운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이 미국 유세여행은 완전한 실패로 끝났던 것 같다. 1916년 이후 재개된 그의 일기 속에서 그는 이 여행에서 겪은 쓰디쓴 경험에 대해 되풀이 언급하고 있다.

(전략) 1910년의 미국여행에 관해 내 기억 속에는 유쾌한 기억은 하나도 없다 ... 미국 이곳저곳에서 만나본 옛날 동창생 몇 사람에게 나에게 보인 냉담한 태도에 내 감정은 뺏속까지 상처받았다. 싫다, 난 또 다시 미국에 가고 싶지 않다.²³⁾

떠나가기 전의 아름다운 꿈은 산산조각으로 깨져버렸다. 달콤한 꿈을 꾸지 마라, 믿을 수 있는 게 자기 자신밖에 없다. 이것이 그가 미국여행으로 얻은 귀중한 교훈이었을 것이다. 그런 그가 영국에서 폴란드로, 폴란드에서 러시아로, 그리고 시베리아 철도로 장춘(長春)을 거쳐 경의선으로 서울에 도착한 것은 1910년 7월 13일, 한일합방의 약 1개월 반 전이었다.²⁴⁾ 그 후 몇 일 동안, 전동의 그의 본택(本宅)을 찾아온 많은 방문객들을 치의(致疑)해서 정탐하는 자가 있었다고 한다.²⁵⁾

22) Spring lecture on the World Missionary Conference of Edinburgh 1910: 2010 Project, Edinburgh University April 26, 2003/ Kyo Seong Ahn

23) 『尹致昊日記 第8卷』(국사편찬위원회), 1924년 1월 10일

24) 『皇城新聞』, 1910. 07. 16

25) 『大韓每日申報』, 1910. 07. 16

V. '양기탁 등 보안법위반 사건'과 105인 사건

1911년 6월 24일, 개성 한영서원에서 개최된 제2회 한국 YMCA 하령회에는 공교롭게도 세 가지 주목할 사건이 앞섰고, 그들이 다 공통된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령회에 결부시켜 생각될 때 이 하령회는 당국의 의심을 사기 쉬운 상황에 있었다.

첫째, 하령회의 주최자인 윤치호는 미국여행을 떠나기 전부터 이미 비밀결사 신민회의 밀명을 띠고 있다는 “풍설”이 돌아가고 있었고, 미국 및 영국을 방문한 후 시베리아 철도로 만주(반일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지역)를 거쳐 돌아온 “요주의 인물”이었다는 사실.

둘째, 이 하령회에 참여한 또 하나의 “요주의 인물” 이승만 역시 미국에서 반일 활동을 하다가 1910년 10월 말에 귀국한 뒤 반년 가량 서울에서 학생운동을 지도했는데, 그 후 1911년 5월부터 6월까지 브로크만과 같이 전국을 순회하고 난 뒤 개성에서 열린 하령회에 참여했던 사실.

셋째는 윤치호가 신민회의 국내 조직과 국외 조직과의 연락을 맡은 것으로, 그리고 둘째는 이승만이 미국 본부의 밀명을 국내 각처 회원에게 전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셋째, 이른바 “양기탁 등의 보안법위반사건”이라 불린 사건이 발각되어 1910년 말부터 용의자의 체포가 시작되었는데, 그 사건 역시 국외, 즉 만주 서간도에 국권 회복을 위한 집단이주를 계획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경무총감부가 105인 사건을 “조작”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이며, 105인 사건의 본질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절대 놓칠 수 없는 사건이다. 좀 길지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건이므로 여기서 그 대략을 사건의 재판 판결문에 의해 소개한다.

[1910년 5월 대한매일신보가 경정부진에 빠져 매각된 후 활동의 자리를 잃은 양기탁은] 청국 영토 ... 서간도에 단체 이주를 기획하여 조

선본토로부터 상당한 자력이 있는 다수의 인민을 동지에 이주시키어 토지를 매입하고 촌락을 세워 새로운 영토로 삼고, 다수의 교육받은 청년을 모집하여 그곳에 보내어 민단을 조직하고 학교 및 교회를 세우고 더 나아가 무관학교를 설립하여 ... 기회를 타서 독립전쟁을 일으키고자 하였다. ... 피고[양기탁]의 일신동체라 칭하며 가장 친교 있는 전 대한매일신보 회계였던 임치정과 ... 서러 왕래하며 위의 계획실행을 협의하였다. ... 동년[1910년] 11월 하순 동지 이동녕이 서간도 시찰을 마치고 돌아오자 동인과 임치정 집에서 회합을 갖고 ... 동년 12월 중순 피고 집에 김구·김도회·안태국·주진수 등의 동지들이 모여 서간도 이주방법을 강구하였다. ... 이에 따라 국권 회복을 꾀할 뜻을 설유하여 회합자 일동이 찬성한 후 각기 출신지를 표준삼아 김구는 황해도 일원, 안태국은 평안도 일원, 주진수는 강원도 일원, 피고 및 임치정은 경기도 기타의 서간도 이주자를 권유 모집하는 담당자로 정하였다. ... 피고 임치정은 과거 대한매일신보의 회계를 맡고 있던 자로서 양기탁과 매우 친교가 깊었다. 동인과 같이 제국과의 관계에 심히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구한국이 제국에 병합되자 곧 양기탁부터 전계의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한 서간도 이주계획에 대해 찬성하고 동인과 자주 왕래하여 그 협의를 하였다. 그 후 김도회에게 앞서와 같이 국권회복을 위한 서간도 이주를 권유하여 찬성을 얻었다. 1910년 11월 중 자택에서 서간도를 시찰하고 돌아온 이동녕으로부터 양기탁과 함께 서간도의 사정을 청취하였다. 이주자는 먼저 선발 이주자로 예정된 이동녕의 집에 보내기로 하고 동년 12월 10일 경 양기탁·안태국 등과 자택에서 회합을 갖고 이주방법을 강구하였다. 동년 12월 중순 양기탁 집에서 단체로 이주회의의 결과를 동인으로부터 듣고 이에 찬동하여, 그 후 동월 하순 그의 자택에서 김도회·안태국 등과 회합하여 앞서와 동일한 이주협의를 갖고 양기탁의 수족 같은 부하가 되어 그 계획실행에 종사하여 목적 수행에 노력한 자이다.²⁶⁾

김구의 『백범일지』 중, 같은 사건을 다룬 부분에 의하면 1910년 12월 중순 양기탁 집에 모인 자는 위에 나온 자 이외에 이동녕·이승훈이 포함

26) 『雲崗梁起鐸全集 第三卷』(雲崗梁起鐸先生全集編纂委員會, 2002), 226

돼 있다.²⁷⁾ 그런데 이 양기탁 집에서 열린 회의의 내용에 관해 김구의 『백범일지』가 말하는 바는 위의 재판기록과 조금 뉘앙스가 다르다.

이 회의의 결과는 이러하였다. 왜가 서울에 총독부를 두었으니 우리도 도독부를 두고 각 도에 총감이라는 대표를 두어서 국맥을 다스리게 하고, 만주에 이민 계획을 세우고 또 무관 학교를 창설하여 광복전쟁에 쓸 장교를 양성하기로 하고, 각 도 대표를 선정하니 황해도에 김구, 평안남도에 안태국, 평안북도에 이승훈, 강원도에 주진수, 경기도에 양기탁이었다. 이 대표들은 급히 맡은 지방으로 돌아가서 황해, 평남, 평북은 각 15만 원, 강원은 10만 원, 경기도는 20만 원을 15일 이내로 판비하기로 결정하였다.²⁸⁾

판결문에 의하는 한, 이 계획은 “국권 회복을 꾀할” 것을 목적으로 삼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서간도 이주 계획이며, 김구·안태국·주진수·양기탁·임치정 등은 “서간도 이주자를 권유 모집하는 담당자”로 돼 있는데 대하여, 김구의 『백범일지』에 있어서는 일본인의 총독부에 대항하여 “도독부를 두고, 각 도에 총감이라는 대표를 두어서 국맥을 다스리게 하”고, 김구·안태국·이승훈·주진수·양기탁 등은 “각 도 대표”로 돼 있다. 김구의 이 “각 도 대표”는 곧 각 도의 “총감”이고, 뒤에 가서 105인 사건의 재판에서 경무총감부 및 경성지방법원 건사국이 “신민회의 각 도 수령”으로 인정했던 바로 그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유포돼 있는 “신민회상(像)”은 1928~29년에 상해에서 쓰인 김구의 이 『백범일지』와 1932년의 안창호의 예심신문조서²⁹⁾에 그 많은 부분을 입어 있는데, 적어도 1911년의 소위 “양기탁 등 보안법 위반 사건”의 공판과정에서는 “신민회”라는 말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27) 김구, 『백범일지』(삼중당, 1983), 151

28) 같은 책, 같은 쪽.

29) 『島山安昌浩全集 第9卷』, 162-195: 「安昌浩訊問調書」

신민회가 보안법위반사건과 연결되게 된 것은 1년 후의 105인 사건의 공판에서부터였다.

위의 김구의 글은 서간도 이주계획, 소위 “양기탁 등 보안법위반사건”의 주체가 신민회라고 명백히 말하고 있지 않고, 그 때 재판 판결문보다 뒤의 105인 사건 때 경무총감부의 주장에 너무 비슷한 내용이 돼 있다. 그러나 서간도 이주계획의 중심인물인 양기탁은 105인 사건 제1심에서(제3심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이 계획은 신민회와는 전혀 상관 없다고 거듭 단언하고 있다.³⁰⁾

총독부 경무총감부(쿠니토모)는 보안법위반사건 당시에는 생각치 못했던 중대한 사실을 1년 후 105인 사건에 이르러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서간도 이주계획 회의가 있던 임치정 집은 그가 대한매일신보에 근무하고 있던 강문수(姜文秀)에게서 빌려 있던 것, 그리고 그 강문수는 오래 전부터 윤치호 집의 잡무를 맡은 피고용자 중의 하나이었고, 그가 임치정에게 빌린 집은 윤치호한테서 공짜로 물려받은 것 등을 경무총감부는 알아냈다. 그 뒤 경무총감부는 강문수를 구속 취조한 결과 마침내 윤치호가 임치정 택에서 열린 서간도 이주계획 비밀회의에 참석했다는 “자백”을 받아내는 것에 성공했던 것이다.

105인 사건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서간도 이주계획이 있던 “양기탁 등 보안법위반 사건”과 윤치호를 결부시키는 것이 절대필요조건이었다. 사실, 105인 사건으로 해서 유죄판결을 받은 윤치호·양기탁·안태국·이승훈·임치정·옥관빈 6명 중, 윤치호를 제외한 5명은 다 보안법위반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양기탁·안태국·임치정·옥관빈), 아니면 증거불충분 때문에 제주도 추방의 거주제한을 받은 자(이승훈)였다.

1911년 6월, 개성에서 제2회 YMCA 하령회가 열려 있던 무렵은 바로

30) 'The Korean Conspiracy Trial': "Japan Chronicle". 1912. 07. 11: 『零岡梁起鐸全集 第三卷』, 255-259

보안법위반사건의 취조가 끝나고 사건이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서 입건될 무렵이었다. 경무총감부의 쿠니토모경시(警視)가 새로이 105인사건의 실질적인 조사에 나서기 시작한 것은 이 사건의 연도가 있던 1911년 7월 22일에서 불과 4일 후인 7월 26일이었다.³¹⁾

VI. 경무총감부 쿠니토모경시(警視)의 엄청난 추리

이제까지 말한 바를 간추리면 아래와 같다.

1907년 2월 20일의 안창호의 귀국에 앞서 “미국 재주 한국인이 조직한 공립협회의 수령 안창호가 국권 회복과 이토통감 암살을 목적 삼는 비밀조직을 한국 내에 조직하기 위해 귀국할 예정이니 충분히 경계하도록”이라는 내용의 밀고서가 통감부에 던져졌기 때문에 통감부는 한국 내 반일분자의 수사를 수행하는 동시에 일본 외무성을 통해 미국 주재 일본 공사·영사에게 지시해서 미국 재주 한국인의 단체조직을 철저히 조사시켰는데 공립협회와 대동협회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알아낼 수 있었지만 정작 비밀조직에 관해서는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다행히 그 후 밀고서가 경고한 것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밀고서에 관해서는 일단 수사를 중지했다.³²⁾ 그 후 같은 해 6월말 헤이그 밀사 사건이 발각되었고, 다음해 1908년 3월 23일에 통감부 고문 스티븐스(D.W. Stevens)가 미국에서 암살당한 사건이 일어났으나 통감부는 아직 “신민회”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같은 해 9월 윤치호는 안창호의 요청을 받아 평양 대성학교 교장 직을 맡고 다음해 6월에는 대성학교 내에서 발기된 청년학우회의 설립위원장 직도 맡았다. 이에 앞서 통감부는 1909년 3

31) 國友尙謙 『不逞事件ニ依ッテ見タル朝鮮人』, 16

32) 『朝鮮の保護及び併合』(총독부, 1917), 55: 『舊韓末日帝侵略史史料叢書 6』(亞細亞文化社, 1984) 所收

월 5일 헌병대한테서 “대한신민회취지서 및 통용장정(通用章程)” 및 그것에 관한 보고서를 받았다. 이것은 통감부가 신민회에 관한 확실한 증거자료를 입수한 최초의 공식기록이다. 그리고 동년 8월 17일의 『大韓每日申報』에 “청년학우회 취지서”가 게재되었고, 10월 26일에는 안중근에 의한 이토 암살사건이 일어나, 10월 31일에 안창호·이갑·이동휘·이중호가 사건의 중요참고인으로서 헌병대에 구속당했다. 안창호는 윤치호를 보증인으로 삼아 같은 해 12월 31일 가(假)석방되었다. 그로부터 약 1주일 후의 1910년 1월 8일, 윤치호는 “한국의 비밀결사 신민회의 사명을 띠고 미국 체류 한인들과 무슨 일을 꾀하고 있는 모양”이라는 통감부의 혐의와 감시 밑에 미국으로 떠났다. 미국 체류 약 4개월 동안 미국 주재 일본 공사관 및 영사관은 윤치호의 행동을 자세히 감시해 봤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는커녕 오히려 일본인에 대한 그의 태도는 그 전보다 누그러져 보이기조차 했다. 미국 체류 후 그는 영국 에든버러에 건너가 1910년 6월 14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세계선교자회의(World Missionary Conference)에 참석해서 제2부에서 연설한 후 1910년 7월 13일, 러시아, 시베리아, 만주를 거쳐 귀국했다. 한일 합방이 된 것은 그때부터 약 1개월 후 일이었다.

양기탁 등의 보안법 위반 사건 및 안명근 강도 사건을 담당한 경무총감부 경시 쿠니토모는 두 사건을 검사국에 회부한 뒤에도 아직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이 남아 있었다. 거기에는 부분적으로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꾸민 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구는 『백범일지』속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우리들은 감방에서 서로 통화하는 방법을 발명하여서 우리의 사건을 아무쪼록 동지의 희생을 적게 하기로 의논하였다 ... 사건의 범위가 축소됨을 보고 [왜놈들은] 의심이 났던 모양이어서 우리 중에서 한순직(韓淳稷)을 살살 피어 우리가 밀어(密語)하는 내용을 밀고하게 하였다.³³⁾

소위 “안악 사건”은 이러한 옥중의 피고인들의 획책으로 결국 “안명근 강도 사건”과 “양기탁 등 보안법 위반 사건”의 두 가지로 나뉘어 재판하게 된 결과 안명근·김구를 비롯한 강도사건으로 언도받은 자는 최고 15년형의 무거운 실형을 받은 데 대해, 양기탁·안태국 등은 그보다 훨씬 가벼운 2년형의 보안법위반으로 처리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기대에 어긋나는 결과에 석연치 않은 마음을 안은 채 나나를 보내고 있던 쿠니토모는³⁴⁾ 때 마침 선천에 있는 미국 기독교 장로파 소속의 신성중학교 교사, 학생 기타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수 년 전부터 역대 통감, 총독 및 구한국 대신 등을 암살하고 한국국권을 회복하려고 음모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26일에 이르러 보다 더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왔다.

명치44[1911]년 7월 26일, 평안도의 흉도들이 전년 43년 12월 총독 서순(西巡)에 임하여 암살을 계획했으나 목적을 이루지 못했던 것을 뒤우쳐 이제도 여전히 흉모를 계속하는 증임을 들었고 또 어느 우두머리에게 물어보았더니, 일은 사실일 뿐 아니라 당시 평양에서 흉도 중의 청년 수 명이 총독을 뒤따라 신의주까지 가봤으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획을 계속하기로 한 사실, 그리고 수사를 이어가는 중에 흉도들의 근거지는 평양에서는 대성, 일신(日新) 양 학교 및 예수 숭실학교, 선천에서는 예수신성중학교, 기타 영□, 정주 각지의 학교도 그 계획 때문에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 특히 평양 거주 미국인 선교사 스왈렌[W.L. Swallen], 베야드[W.M. Baird]의 무리도 이 망거(妄擧)를 뒷받침하고 숭실중학 학생 중의 흉도를 부채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³⁵⁾

33) 『백범일지』, 156

34) 國友尙謙 『不逞事件ニ依ッテ見タル朝鮮人』, 413

35) 윗글, 16-17: 「제2 발각의 단서」 * □ 부분은 해독 불가능함.

이렇게 해서 시작한 총독부 경무총감부의 수사가 어떤 방침 밑에 수행되었던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1911년 중순 이래 시작한 선천 신성중학교의 학생·교사들의 체포에 항의하고 평양 거주 선교사, 모페트[Moffett]·애비슨[Avison]·위트머[Whitmore]가 테라우치 총독에 회견을 요청, 만났을 때, 테라우치가 그들에게 설명한 다음 대답에서도 알 수 있다.

(전략) 그런데 귀하등 지도 밑에 근대 문명의 교육을 받아 순량한 신민이어야 할 기독교신도들 가운데서 이러한 비모(匪謀)를 꾀하는 자를 많이 내었다는 사실은 오히려 의외의 일이다. 그리고 이번 범죄 혐의자들은 귀하의 동포 스티븐스 [D.W. Stevens]씨를 샌프랜시스 코에서 죽였고, 요즘에는 하울빈(哈爾濱)에서 이토공을 암살하고, 또 전 수상 이완용을 습격한 비도와 혹시 사실상 혹시 정신상 관계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의 치안 상, 그럴만한 처치를 취하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³⁶⁾

이 인용으로 보아 경무총감부가 스티븐스, 이토의 암살, 그리고 이완용의 암살 미수 사건이 동일 범죄 조직에 의하는 것으로 보고 있었고, 또 이번 사건으로 체포된 선천 신성학교 학생 및 교사들이 그 조직의 주체라고 간주하고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이번 선천사건의 수사를 계속함에 따라, 사건의 지도자로 지목되는 자는 선천에 있는 상무동사총지점(商務同事總支店)의 책임자 양준명, 기독교 목사 양전백(梁甸伯) 및 무역상 이용화(李溶華) 등임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들 셋은 다 1911년 6월, 윤치호가 개성에서 주취자가 되어 개최한 제2회 YMCA 하령회의 참여자였고, 특히 양준명은 그때 학생대표를 맡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³⁷⁾

36) 『日本外交文書』第45卷 1册, 460: 테라우치 조선 총독 및 미국선교사와의 회담 적요(摘要), 1912년 1월 23일

37) 전택부 1994, 156: 당시 양준명의 나이는 33세.

1910년 1월 윤치호가 미국·영국 여행에 떠나갔을 때 그가 신민회의 밀명을 띠고 있다는 “풍설”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 때 일본 관헌은 그럴 듯한 증거를 얻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중요용의자 중에 윤치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물이 셋이나 있었다. 더군다나 지난 보안법위반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중, 옥관빈은 평양 대성학교 학생시절부터 윤치호와 잘 아는 사이였고, 안태국 역시 평양 태극서관의 주임으로 윤치호와 관계가 있고, 무엇보다도 임치정(대한매일신보 회계)이 살고 있는 경성 서대문 밖 사택은 강문수(대한매일신보 사무원)한테서 빌린 것인데, 강문수는 오래 전부터 윤치호 집의 고용인으로 일해 온 인물로 그 집은 윤치호가 공짜로 강문수에게 넘겨준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1910년 11월 및 12월 임치정 집에서 양기탁·이동녕·안태국 등이 모여서 서간도 이주계획을 모의했을 때 윤치호 자신도 같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것은 쿠니토모에게 일대 발견이 아닐 수 없었다.

사건의 수사를 진두 지휘하고 있던 쿠니토모는 이 시점에서 1907년의 안창호 귀국 이래 이제까지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이 얼핏 보기에 아무 상호관계 없는 따로 떨어진 사건처럼 보이면서도 기실은 다 그 배후에 윤치호가 있던 것이 아닌가? 라는 중대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다.³⁸⁾

쿠니토모의 이 엄청난고도 아주 대담한 추리는 스티븐스와 이토의 암살, 그리고 이완용의 암살 미수 사건에 제하여 그 배후관계의 해명에 애를 써온 통감부(총독부) 경무총감부에 있어서는 이제까지의 의문을 다 해결해주는 일대 발견이 아닐 수 없었다. 문제는 어떻게 해서 이 엄청난 추리를 증명하는가에 달려 있었지만 그들에 있어서는 이만한 상황증거가 있으면 나머지는 용의자의 취조를 통해서 자백시키면 그만이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105인 사건의 제1차 공판 기록과 제2차 공판기록을 가만히 비

38) 國友尙謙, 『不逞事件ニ依ッテ見タル朝鮮人』, 66-68

교해서 읽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사실 쿠니토모는 윤치호가 입지정택에서 열린 서간도 이주계획 비밀회의에 참석했다는 증언을 강문수부터 끌어낸 다음, 그 결과를 가지고 윤치호 자신부터 “자백”시키는 것에 성공했다.

그런데 입증의 주요한 부분을 자백에 의지할 때, 그 활동사실이 확실한 조직단체의 실태는 쿠니토모가 공상한 추리와는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와 반대로 거의 활동실태가 없는 조직인 경우 고문을 통해서 자유로이 자기의 추리 공상대로의 자백을 끌어낼 수 있다. 그래서 고문을 통해 자기의 추리 공상에 안성맞춤의 자백을 얻어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신민회”라는 거의 활동실태가 없던 조직을 엄청난 비밀결사로 실재화(實在化)시키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갔던 것 역시 당연한 일이었다.

이렇게 해서 그때까지의 모든 사건의 배후에 신민회와 윤치호가 있었다는 일대 사실을 깨달았을 때부터 쿠니토모에 있어서 이번 선천 기독교도들의 총독암살 음모사건을 윤치호와 결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었다. 이제까지의 많은 반일 운동, 국권회복운동, 암살사건 등의 배후에 윤치호가 있었다는 그의 추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윤치호가 그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광범위에 걸친 거대한 조직을 지휘·명령하고 있던 것을 실증해야 했다. 그는 수 백 명의 용의자를 체포·구류하면서 고문을 가지고 그들에게서 자백을 받아내는 것으로 이를 성취했다. 신민회라는 사실상 그 조직 과정에서 공중분해 돼버린 하잘것없는 조직을 엄청난 비밀결사로 만들어낸 것은 윤치호가 모든 반일운동의 “흑막”이라는 그의 몽상을 증명하기 위한 필연적인 결과였다.

아쉬운 일이지만, 신민회가 사실상 그 조직 과정에서 공중분해 돼버린 하잘것없는 조직이었다는 것, 그리고 쿠니토모가 어떻게 해서 그의 몽상(그에 있어서는 일종의 “작업가설”)을 증명했는가를 구체적인 자료를 가

지고 밝히는 것은 이 논문의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기회를 얻어 자리를 바꿔 검토할 예정이다.

VII. 맺음말

쿠니토모가 꾸며낸 신민회상(新民會像)에는 하나의 특징이 있었다. 현재 널리 알려져 있듯이 신민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기독교인이었지만, 쿠니토모의 신민회 인식에는 기독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천주교인, 천도교인, 심지어 일본 조합교회(組合教會)원, 그리고 무종교인도 포함돼 있었다. 거기다 당시의 국권 회복단체 내의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서북파, 기호파 라는 지역 대립에 관해서도 쿠니토모가 공상한 신민회상에는 기호파의 대표적인 인물인 윤치호가 포함돼 있다. 요컨대 쿠니토모의 신민회상은 조선 국내-외를 포함한 전 조선민족적인 반일단체, 바꿔 말하자면 “Federation of All Joint Koreans against Japan”이라고도 할 특징을 띠고 있었다. 이는 조선 내외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그때까지 끝끝내 실현할 수 없었던 한 가지 꿈이었다. 쿠니토모의 신민회상은 그 실현할 수 없는 그들의 아름다운 꿈을 앞서 성취해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신민회라는 하잘것없는 취약한 조직에 쿠니토모(및 총독부)가 부여한 이러한 허상이 이 사건 후 조선 내외의 독립운동가들 자신에 의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 같다.³⁹⁾

39) 경성복심법원 제2심에서 윤치호의 변호를 맡은 일본인 변호사 오가와 헤이키치(小川 平吉)는 그 변론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검사의 말씀에 의하면 이 신민회라는 것이 실로 질서 정연한 것으로, 그 회에는 수령이 있고 전령사가 있고 병졸이 있고 본부가 있고 지부가 있고, 그리고 윤치호가 그 회장, 유동열이 부회장. 또 그 목적은 한편으로는 서간도에 무관학교를 설립하고 청년자제를 교육하고 일조 일미 혹은 일침 간에 전단이 벌어지면 그 기회를 타서 독립전쟁을 일으켜 국권을 회복하고 …… 할 것을 목적으로 삼는 비밀단체라는

그 호시는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⁴⁰⁾일 것인데, 1919년의 3·1 독립운동 후 상해에 수립된 임시정부가 조선민족의 대동단결을 내걸기 시작하자, 신민회라는 조직은 그들의 꿈을 실현한 이상상(理想像)으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받고 역사상의 실체임을 떠나 일종의 신화화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한국에 유포돼 있는 신민회상에서 윤치호의 이름이 살아진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견해도 자리를 바꿔 다른 기회에 언급할 예정이다.

것이고, 윤치호가 그 수령이라는 것인데 불행히도 저는 이를 믿을 수 없습니다. …… 신민회라는 것이 결코 그런 질서 정연한 조직이 아닙니다. 경찰 조서에 보이는 신민회란 다 소위 '자백'을 가지고 교묘히 꾸며진 것이니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朝鮮總督暗殺陰謀事件』(1986, 도쿄, 不二 出版:『百五人事件資料集·第4卷』), 130-31

* 오가와는 일본 우익의 거물이며 이 사건의 변호 활동 기간을 전후해서 세 번이나 총독부 관저에 데라우치를 찾아가 개인적으로 면담한 사실이 데라우치의 일기에 기록돼 있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이 글은 음미할만하다.

40) 上海, 維新社, 1920년

〈Abstract〉

Korean YMCA and 105 case

Concerning the scandalous case called “Korean Conspiracy Case” or “105 Case”, where hundreds of Korean Christians and pastors and students arrested between October 1911 and February 1912, the authorized description in Korean historical studies has been holding that the plot was sheer fabrication by Japanese Gendarme Police and Government General but that New People’s Society(NPS) was a substantial organization, having members of several hundreds, Yang Gi-tak, Chon Duk-ki, An Ch’ang-ho etc. being the top members. But from the time the case was being tried in the colonial courts through to the release by amnesty of the sentenced 6 members in February 1915, the person at the core of the case was not Yang Gi-tak nor An Ch’ang-ho but Yun Chi-ho, whom Government General held as the godfather of NPS, pulling the strings behind the members. Where on earth has Yun Chi-ho gone?

This article tried to trace the behaviors and thoughts of Yun leading to his arrest, which will make the basic work to find the answer to the question above, and came to the conclusion that Yun was arrested on the suspicions that: (1) a series of 1 year anniversary ceremonies held in P’yongyang in June 1909 by Taisong Hakkyo faculty was a secret meeting for ring-leaders of NPS.; (2) his trip to U.S. and Scotland in 1910 was on the errand to make contact with NPS members overseas.;

(3) YMCA's summer camp in June, 1911 was a meeting for members of NPS to secretly discuss another plot to assassinate the Governor General.

Key Words: Yun Chi-ho, New People's Society, Yun's trip to U.S. & Scotland, 1 year anniversary ceremonies of Tai-song Hakkyo, YMCA's summer camp in 1911

〈참고문헌〉

서적

- 山縣五十雄, 『朝鮮陰謀事件』: 『百五人事件資料集·第3卷』(토쿄 不二出版, 1986)
國友尙謙, 『不逞事件ニ依ッテ見タル朝鮮人』: 『百五人事件資料集·第2卷』
有馬義隆編纂, 『朝鮮總督暗殺陰謀事件』: 『百五人事件資料集·第4卷』
전택부, 『한국 기독교청년회 운동사』(범우사, 1994)
『한민족독립운동자료집 1 & 3』(국사편찬위원회, 1986 & 87)
『한국근대사자료집성 3: 요시찰한국인거동(要視察韓國人舉動)』(국편, 2001)
『통감부문서 6 & 9』(국사편찬위원회, 1999)
『尹致昊日記 第6-8卷』(국사편찬위원회, 1971/81/87)
『尹致昊書簡集』(국사편찬위원회, 1971)
「豫審訊問調書」: 『島山安昌浩全集 第9卷』(도산안창호선생전집출판위원회, 2000)
「도산안창호 연보」: 『島山安昌浩全集 第13卷』
『靑崗梁起鐸全集 第III卷』(우강양기탁선생전집편찬위원회, 2002),
김구, 『백범일지』(삼중당, 1983)
『日本外交文書』(日本外務省, 1963) 第45卷1册
『朝鮮の保護及び併合』(총독부, 1917),
이광수, 『도산안창호』(홍사단출판부, 1983)
박은식, 『韓國獨立運動之血史』(서문문고, 1975)

신문

- 『大韓每日申報』, 1907 / 1909 / 1910: 『皇城新聞』, 1910: 『每日申報』, 1912

File

- Yun Chi-ho Collection, Box No. 8f4, Item No. 1: "The Robert W. Woodruff Library", Emory University
Spring lecture on the World Missionary Conference of Edinburgh 1910: 2010 Project, Edinburgh University April 26, 2003/ Kyo Seong Ahn

논문

- 尹慶老 「新民會의 創立過程」: 『史叢(第30輯)』, 1986